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데이터로\_보는\_입시

데이터로 보는 입시 06

성취도 비율 고려하는 서강대 교과전형

## 진로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면 유리한 이유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1092호 EDUCATION

### '2024 교과전형 숨은 변수?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식 주의' 기사 중

하는 과목 모두를 1등급으로 변환하고, B와 C에 대해서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한다. 서강대는 반영하는 진로선택 과목의 산출 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100점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취 비율을 고려해 환산하지만,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만점을 준다. 서강대는 '표 1'에서 보듯 진로선택 과목 전부를 반영하므로 진로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했다면 더 유리해진다.

**표 4. 2024학년도 대학별 학생부교과전형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법**

대학명	반영 방법	반영과목	성취도별 환산점(등급)	비고
건국대	정성 평가	반영 교과		
경희대	성취도별 환산 점수	반영 교과(3과목)	교과 이수 단위를 기준 평균	
고려대	성취도별 변환 석차 환산 등급	반영 교과	A=등급, B, C=성취도 비율 고려 산출	
동국대	정성 평가	전 과목		
서강대	성취도별 환산 점수 (성취도 비율 고려)	반영 교과	과목 성취 비율 = 취득 성취 비율/2 + 성취도 하단 성취 비율 합계	
서울시립대	성취도별 환산 점수	반영 교과(3과목)	A=100점, B=97점, C=90점	2023 기준

이는 과목 모두를 1등급으로 변환하고, B와 C에 대해서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한다. 서강대는 반영하는 진로선택 과목의 산출 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100점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취 비율을 고려해 환산하지만,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만점을 준다. 서강대는 '표 1'에서 보듯 진로선택 과목 전부를 반영하므로 진로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했다면 더 유리해진다.

**교과 전형 평가방법 대안 증가.**  
**진로선택 과목 반영률 증가?**  
각 대학 당에 상관없이 교과전형에서는 석차 평가를 실시한다. 성취도 비율은 100% 반영이 아닌 성취도 비율로 인해 교과별 성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등급이 아닌 성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반영하는 과목의 반영률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하는지 등을 고려해 제정

#### 1.4 성취도, 성취비율 산출 관련 안내 : 비율계산(100점) 산출예시

비율계산 점수 (만점 100점)	반영과목개수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6과목
과목별 환산성취비율	80점	40	80	100	100	100
	70점	35	70	100	100	100
	60점	30	60	90	100	100
	50점	25	50	75	100	100
	40점	20	40	60	80	100
	30점	15	30	45	60	75

서강대는 교과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할 때 성취도 비율을 고려해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1092호 기사의 표 4에서 설명했듯이 서강대는 취득 성취 비율을 2로 나누고 성취도 하단 성취 비율을 합해 과목 성취 비율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과목별 성취 비율 점수를 더한 뒤 2로 나누면 최종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는 진로선택 과목의 산출 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모두 만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수했다면 각 과목당 성취 비율 점수가 70점 이상(70×3÷2=105), 4개 과목을 이수했다면 50점 이상(50×4÷2=100), 5개 과목을 이수했다면 40점 이상(40×5÷2=100)을 받으면 만점입니다. 반대로 진로선택 과목을 1~2개만 이수했다면 만점을 받기 힘든 구조이지요.

진로선택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과 달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또한, A, B, C 3단계로 구분하기에 좋은 성적을 받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진로와 연계된 과목인 데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내일교육) 기사에는 데이터를 포함한 표가 많습니다. 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데이터로 보는 입시'는 지난 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편집부에 알려주세요. 한걸음 더 들어가 해설로 찾아하겠습니다. **편집자**